

이번 호부터 '발상의 전환'을 주제로 (이광영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칼럼은 주제대로 우리생활 속에서 잊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발상을 전환해 보는 내용으로 이광영(李光榮) 본지 편집위원이 맡아 집필합니다. 이광영 편집위원은 65년 한국일보사에 입사, 31년간 봉직하는 동안 과학기자 외길을 달려 과학부장과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전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학과 초빙교수로 재직중입니다. 또한 과학문화진흥회와 대한암협회 및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대한민국 과학기술타(93년)과 국민훈장 석류장(88년) 등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애독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註】

요즘 50~60대 중늙은이들의 수난시대다. 중늙은이는 어디서고 반기지 않는다. 반기기는 커녕 천대받기 일쑤다. 선진국 같으면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들이 구조조정이다. 조기 은퇴다. 정년 하향조정이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일터를 잃고 보니 갈 데 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집에 있으려니 마누라와 다툼만 하고 나가자니 마땅한 곳이 없다. 기원과 골프장이 중늙은이들로 붐비는 것이 이 때문이라 한다. 돈 있는 중늙은이는 골프장으로, 돈 없는 중늙은이는 기원으로 몰려간다는 이야기다. 개중에는 무작정 집을 나와 발달는 데로 배회하기도 한다고 한다. 서울의

어떤 중늙은이는 순환전철을 타고 몇바퀴 돌다 보면 하루 해가 진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특히 무임승차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중늙은이들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 꽤 섞여 있다는 이야기다. 전철 매표원이 이런 중늙은이들에게 무임승차권을 획 집어던져 시비가 일기도 한단다. 그도 그럴 것이 추한 늙은 모습은 보이기 싫어 머리에 물감을 들었으니 누가 65세 이상으로 볼 것인가.

우리의 중늙은이들이 할 일을 잃고 배회하는 데는 그동안의 삶이 너무 여유없이 바빠 돌아갔기 때문이다.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게만 살아온 세대이기에 갑자기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주체해야 할지 모를 수 밖에 없다. 거기다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의 이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금리가 5~6%대로 떨어져 생계마저 어렵게되었으니 쉬느니 한숨 뿐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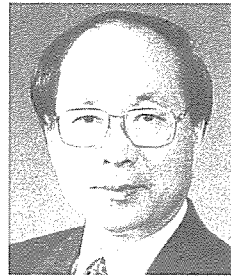
중늙은이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서나 세상 되어 가는 꼴을 못마땅해하고 비판하게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한다. 중늙은이들의 담론(?) 속엔 정치에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루지 않는 것이 없다. 정치 새판짜기와 차기 대권주자들의 이야기에서 검은 정치현금과 각종 스캔들이 오르내린다.

대북 정책에서 경제와 교육 실패 그리고 건강보험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른다. 무슨 게이트니 하는 이야기도 좋은 먹거리이다. 이야기가 비록 좋은 것에서 출발했다 해도 결론은 부정적이지요 불평으로 매듭지어지지 마련이다.

중늙은이들이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전철에서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자리를 차지하고 눈을 딱 감은 후 앞에 누가 있든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석에 젊은이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참지 못해한다. 30~40대의 새파란 아낙네가 중늙은이를 제치고 짹짹 새 빈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는 분해하기도 한다.

발상의 전환 이광영칼럼

중늙은이와 전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중늙은이가 있다면 잠시 생각을 바꿔보았으면 한다. 오죽했으면 젊은이들이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 뛰어가고 자리를 차지하면 눈을 감겠는가 말이다. 요즘 세상은 젊은 사람들의 시대이다. 건강하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지탱될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하면 불쌍하다. 비록 먹고 살기는 옛날에 비해 무척 좋아졌다지만 삶 자체는 축은할 정도로 고달파져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5~6세 때부터 영어와 피아노학원에서 체육관 등을 정신 없이 뱅뱅이 돌아야만 했다. 힘들게 학업을 마치고 운 좋게 직장을 잡았지만 자기 시간이라고는 없다. 생존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진 것이다. 그러니 이들 젊은이들이 자리다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중늙은이들이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보람있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중늙은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사회에 봉사하지는 못한다 해도 이만한 일쯤은 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①7